

2021 새해 새 설계

이동진 진도군수

“군민 안전과 삶의 질 높이는 역동적 군정 펼칠 것”



“군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군정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하겠습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12일 “최근 들어 디지털 혁명, 기후 위기, 감염병 대란 등 예상하지 못했던 3대 전환적 위기를 맞아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비롯해 31개 공모사업 선정(494억원), 청렴도 평가 2등급 등 혁신적·창조적 결실을 맺었다”고 지난 한해의 평가했다.

이 군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대응 비상방역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환경에서 역동적인 군정을

해상풍력·진도항 배후단지 조성

진도읍 종합개발사업 추진

진도역사문화관·군립미술관 건립

펼쳐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과 해상케이블·모노레일 동시 개장 등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기를 강력히 추진한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광 유람선 민간자본 유치를 비롯해 신기지구 전원주택 100세 입주, 280세대 재외교포 귀향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해 대규모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인 진도읍에 오는 2025년까지 1631억원을 투입해 진도읍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고품격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안길 정비, 지방 개량 등 섬 마을 정주환경 개선

2021년 주요 사업

- ▲진도읍 종합개발사업
- ▲운림명승지구 개발사업
- ▲해상풍력단지 조성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사업
-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도 적극 펼쳐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농·수·축·임업을 통합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리를 개정, 산업별 지원을 위해 기금 150억 원을 조성한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확대, 체험·가공·판매로 이어지는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농업단지 면적 3600ha 확대 등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터센터 증容, 공동집합장 건립 등 어업소득 다변화로 고소득 창출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깨끗한 해안경관을 조성해 나간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민속예술대학 건립, 상·장례문화 유네스코 유산 등재, 산재된 문화예술을 집대성한 진도역사문화관과 군립미술관 건립 등 관광·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 유치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진도항 여객선터미널 신축, 진도읍 남부권 개발기본계획 확정, 마을 하수도 정비, 배수개선·재해위험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적극 추진 등 생활여건 개선과 함께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어 나간다.

전 마을에 CCTV 설치 완료와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주민 자치 역량 강화, 1000원 버스 시행, 진도읍 전선 지중화,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등 사람 중심의 안전한 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진도 만들기를 약속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전남 지자체, ‘경로 미궁’ 부부 확진에 외국인 선제 전수검사

나주 동수농공단지 근로자 315명
병원·대학교 종사자 등 800여명도
순천시, 취약시설 종사자 전수 검사



나주시가 동수농공단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나주에 거주하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부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감염 경로가 규명되지 않아 비상이다.

나주시는 물론 순천시도 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전수조사에 나섰다. 앞서 영암군은 대불산단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들을 전수 검사했다.

12일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11일 동수농공단지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315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동수농공단지는 다양한 제조 업종별 사업장이 밀집해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코로나19 발생 시 집단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전수 검사가 이뤄졌다.

나주시보건소는 13~15일까지 사흘 간 지역 병원과 대학교, 운수회사 등을 대상으로도 외국인 종사자와 유학생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나주시는 집단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의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3500여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8일 한 장애인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조리사) 1명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인 방역 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았다.

나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정보력이 부족해 검사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정기적인 전수검사를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도 병원과 교도소 등 취약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236개 기관에서 일하는

1만2250여명을 대상이다. 전수 검사 대상은 택시와 시내버스 기사 1650여명, 병원 종사자 3840여명, 외국인 유학생 360여명, 콜센터 560여명, 자활센터 간병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80여명, 교도소·특수시설 종사자 340여명 등이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달부터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 등 5240여명에 대해 매주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장흥서 수정란 이식 새해 첫 혈통 송아지 출산

장흥군은 지난해 생체 난자 흡입술(OPU)을 통해 수정란이 이식된 한우가 새해들어 첫 혈통 송아지를 생산했다고 12일 밝혔다.

OPU 수정란 이식은 고능력 암소의 난자를 채취해 우량 정액과 수정된 생식세포를 한우 농가에 이식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우수 유전자를 가진 송아지를 생산, 족보를 갖춘 혈통 한우를 생산하게 된다.

장흥군은 지난해 11농가에 150두를 이식해 76두가 수태돼 50%의 이식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3농가는 70%가 넘는 우수한 수태율을 보였다.

앞서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이식사업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식에 한번 실패할 경우 임신우의 공태 기간이 길어져 농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고, 과거 3년간 실패한 전력이 있어 수정란 이식에 대한 농가의 거부감도 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축적한 결과 지난해 추진한 수정란 이식사업부터는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채취된 신선 수정란, 거리적으로 가까운 이점, 지역에 상주하는 전문 이식사(수의사, 수정사)의 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충무취재본부장 kykim@

세일골

“군민소득 증대·살기좋은 고흥건설 최선”

정하용 고흥 부군수

“34년 공직생활 동안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소득 증대와 살기좋은 고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29대 고흥부군수로 부임한 정하용(60) 부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군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군수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취임식 없이 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고흥에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역임했다.

고흥 도화면 출신인 정 부군수는 순천고와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 1986년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 문화예술담당, 친환경정책담당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 농업정책과장으로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